

# 구원의 자격은 구세주가 되는 것이다

## 구세주가 되는 방법 1 - 구세주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구세주가 있다고 마음먹기

23년간의 역사가 흘러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구세주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주에서 처음으로 나온 철학이며 또한 마지막이 될 완성의 학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만드는 학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되는 철학, 구세주가 되는 철학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려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되는 방법은 굉장히 쉬운 방법이기에 이것은 일종의 천기가 속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류역사 육천 년 이래 이와 같은 철학을 논한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완성자만이 이러한 철학을 처음으로 논하는 것입니다. 이 철학은 하늘 나라의 지혜요, 하늘 나라의 학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게 맡겨야 하나님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맡겨야 하나님이 되는게 그 하나님에게 맡기는 철학이 어떠한 것이냐 하면 알고 나면 아주 쉬운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남자를 붙이면 무엇이 되지요?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처럼 구세주 안에 여러분들이 있고 또한 여러분들 안에 구세주가 있어야 구세주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될 때 바로 여러분들이 구세주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천당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구세주는 완성자입니다. 완성자가 되는 방법은 구세주가 되는 완성자 안에 들어가면 바로 완성자가 되게 되며 또 내 안에 완성자가 계시면 바로 내가 완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 구세주가 되는 방법 2 - 온전히 맡기기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이 처음에 역곡에 나와서 모든 식구들에게 말씀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가 되면 끝나는 것이며 온 인류가 하나가 되면 더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세요. 구세주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구세주가 있으면 구세주가 되는 논리입니다. 어느 철학자도 이러한 학문을 논한 적이 없습니다. 완성자인 구세주가 처음으로 가장 차원이 높은 학문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학문을 알면 하나님이 안 될 수가 없고 구세주가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구세주 안에 있고 구세주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가 돼요, 둘이 돼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구세주가 되는 방법은 구세주가 승리자를 거치고 또 이겼다가 거처서 완성자가 된 다음, 하나님이 되었다가 되고 마침내 그 다음에 구세주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사람이 밀실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하는 것을 늘 고심하면서 밀실에서 연구의 연구를 거듭한 끝에 바로



구세주 조희성님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겨야 되는 것을 발견했고 또한 온전히 맡기다가 또 안 맡긴 것으로 떨어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온전히 맡긴다로 떨어지려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 온전히 맡겼다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여러분들이 구세주가 안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세주가 되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려면 내가 죄를 뽁뽁 짓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를 안 짓고 깨끗한 심령으로 이루어져야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내가 깨끗해야 되는 것이므로 내가 흠과 티가 없이 깨끗한 심령이 되어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밀실 안에서 이렇게 투쟁을 해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마귀는 바로 나라는 의식이므로 나라는 의식을 제거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어 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

는 것이 바로 마귀가 되는 나라는 의식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 구세주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다 구세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구세주가 못 된다면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저주받은 사람은 지옥 가요, 천당 가요? 지옥 가는 것입니다.

## 구세주가 되는 방법 3 - 구세주를 고도로 사모하기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려면 하나님을 고도로 사모해야 했던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구세주 안에 거하려면 구세주를 고도로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세주가 바로 여러분들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세주와 내가 하나가 되니까 구세주로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세주 완성자가 되기 때문에 전지전능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도로 사모하고 이

제 그대로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것으로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것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 구세주가 되는 방법 4 - 나의 모든 것은 구세주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하나님이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보통 사람들과 사고방식이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푼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것을 내가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해서 사용하면 죄가 안되지만 이제 그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선 이게 죄가 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쓰면 죄가 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성경에 어떤 말

씀이 있나 하면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갈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만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면 자연히 주님 안에 살게 되며 또 주님이 내 안에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 구세주가 되는 방법 5 - 모든 사람을 나와 동일하게 여기므로 온 인류에게 평화주기

이 사람이 영모님 때는 순종을 해야 구원이란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엔 바로 이 사람이 나와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야 구원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란 말은 무엇인가 하면 나와 내가 없다는 것이며 누구든지 나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와 같은고로 온 인류가 둘이 아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 인류에게 평화를 주는 것입니다. 온 인류에게 진정한 평화는 하나가 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이며 하나가 되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나라가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전쟁을 하다가 휴전을 하고, 평화 회담을 하다가 또 전쟁을 하고 그러죠? 그건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나라와 팔레스타인 나라가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평화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스라엘 나라와 팔레스타인 나라가 평화스러운 나라가 되려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

레스타인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여기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 몸같이 여긴다면 전쟁할 수 있을까요? 전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그대로 구세주를 고도로 사모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구세주 안에서 살게 되고 구세주가 또 여러분들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구세주가 나오, 내가 곧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 앞으로 모든 인류는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인류 모두가 구세주가 된다

23년간 구세주 혼자서 구세주 노릇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구세주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이, 다름아닌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구세주를 고도로 사모하는 생각을 함으로 여러분들 자신이 구세주 안에서 살게 되고 또 구세주 자신이 여러분들 속에서 살게 되니까 구세주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구세주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면 여러분들이 다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성의 구세주가 되면 구세주와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세주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마귀들이 구세주 하나만 없으면 되는 줄 알고 구세주를 옥중에 집어넣지만 구세주가 많으면 하나 잡아 놓으면 또 있고 또 하나 잡아 놓으면 또 있고 구세주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마귀가 앞발 뒷발을 들까 안들까? 앞발 뒷발 모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정혈 기혈 신혈의 3혈은 하나의 유기체로서 상호작용한다. 인간의 몸에서 정(精)의 생체에너지가 모이는 곳은 <하단전(배꼽부위)>이고, 기의 생체에너지가 모이는 곳은 <중단전(가슴)>이고, 신(神)의 생체에너지가 모이는 곳은 <상단전(머리)>이다. 서양에서도 배는 본능(정신), 가슴과 심장은 감정(기), 머리는 정신(신)을 나타낸다 한다.

이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정기신혈은 각각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몸 안에 이어져 상호작용을 한다. 그래서 정혈의 변화가 기혈, 신혈의 변화를 가져오고, 기혈의 변화 역시 정혈, 신혈의 변화를 초래한다. 신혈이 변화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 고차원 의식이 저차원 의식 지배

그런데 의식의 차원이 높을수록 보다 하위의 차원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경향이 크다. 예를 들자면 기혈은 정혈을 지배하고 통제하게 된다는 것이다. 육체가 병이 들었을 때, 그 병자에게 기(氣)를 넣어줌으로써 육체(정혈)를 치료할 수 있다. 더 강력한 기력의 소유자가 기력이 고갈된 사람에게 기운(氣運)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안수와 안찰과 같은 것이다.

요즘 자기(磁器)를 이용한 물리치료기나 의자, 소파, 침대 그리고 알파링 등이 성행하고 있다. 기혈적 차원의 물질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자율신경의 기능을 편안하게 한다. 근육

### [연재] 不老不死 어떻게 가능한가

## 피의 해부② 인간의 의식차원 4(피의 스펙트럼)

긴장을 완화시키고 피로를 풀어줌으로 각종 성인병을 치유한다. 기혈 차원의 자기의 힘은 물질적인 피와 육체의 여러 세포 기관에 대해 지배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정혈은 기혈에 영향을 받고 통제되며 한의학에서도 '기통혈(氣統血)'이라 하여 기가 혈을 지배한다고 말하고 있다. 정혈이 기혈의 지배를 받듯 기혈은 신혈의 지배를 받는다.

그리고 신혈은 기혈을 매개로 하여 정혈도 지배한다. 중국 기공(氣功)에서는 운기(運氣)의 원리로서 '의령기(意令氣)'라 하여 의(意)가 이르는 곳에 기가 이르고, 기가 이르는 곳에 혈이 이른다고 말한다. 우리가 흔히 마음먹은 대로 된다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신혈적 차원이 정혈적 차원을 지배하여 그 결과를 임의로 유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심령계에서는 마음 속에 그러는 것이 그대로 실현이 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렇다고 생각만 한다고 되어서는 것이 아니라 기도나 명상 상태의 조건에서 간절히 심정으로 염원할 때 그것은 이루어진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다. 진정 마음의 확신과 집중력이 무엇이든지 성취

가능하다는 것이다. 성경에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마태복음17:20)"고 기록된 것은 예사말이 아니다.

2017.4.23. 네이버 오늘의 이슈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시계를 조종하고, 눈으로 종이를 태우는' 실제 초능력자가 한국에서 존재했다고 한다. 대한민국 초능력계의 획을 그었던 김성한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에게 큰 화제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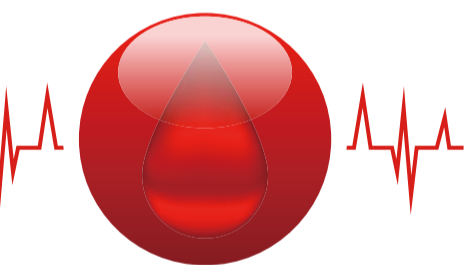
김성한 씨는 지난 1984년 11월 19일 경북도교육위 상황실에서 도지사, 교육감, 지방법원장, 대학총장, 대한 초능력학회 회원 등 2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시간이 넘게 여러 가지 초능력을 보여 참석자들을 놀라게 했다. 인터넷에 여기저기 올라와 있는 초능력들에 대한 사실을 접하면서 우리 속에 본시 내재된 잠재능력을 제대로 꽃피운다면 굳이 밖으로부터 보이는 요행과 기사이적은 바라지 않을 것이다.

우주는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생명체)로 구성되어 있다. 동양의 관점에서 말하는 소우주인 인간에게 생명에너지인 피와 기가 꼭 차게 흐르듯 온

우주에 생명의 에너지와 보이지 않는 의식으로 편만해 있다. 우주 속의 모든 존재들은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생명에너지와 의식으로 상호간에 교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가운데 인간은 우주 내 모든 존재들의 지배적인 위치에 있다.

인체에 비유하자면 인간은 우주라는 대 생명체 내에서 머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요 소우주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것이다. 인간은 다른 모든 존재에 비해 그 의식성이나 자유의지량, 생명력이 다른 것과 비교불가하다. 이 세상은 힘이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지배하듯 인간의 자율적인 생명이 타율적인 만물의 생명을 지배하는 것이다. 이 우주는 인간이 존재하므로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은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니다. 지구 내의 모든 것들을 인간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을 보아야 할 수 있다.

어떤 집단에 있어서도 리더가 그 조직을 유지 통솔하듯 인간의 고차원적인 생명에너지와 의식의 힘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 땅위에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구뿐만 아니라 이 우주는 흩어지고 말 것이다. 지배하는 머린 인간 없이 몸



통인 세계와 우주 온전히 존재할 수 없다. 바로 인간은 우주를 존재하게 하는 생명의 본체요 주체인 것이다. 물론 몸통에 의해 머리로 존재할 수 있듯 자연만물과 우주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인간도 존재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우주적인 대변화에 있어 인간이 일차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체자이다. 인간이 만물의 주체자라는 것은 인간의 주체적 의지와 노력에 의해 만물과 이 세계가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한다.

### 인간의 내면적 변화 선행되어야

성경에도 쓰여 있길 생명이 곧 하나님이고, 인간과 만물은 그 하나님(생명)으로 지은바 되었다고 한다. 곧 인간과 만물이 생명이 있는고로 하나님(신)으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이요 대등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인간과 만물이 신이라고 경외했을 때,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결코 비약된 논리가 아니다. 오히려 인간의 삶의 질과 가치가 더 높아지고 고차원적인 생을 날게 된다. 인간 스스로가 지배하는 위치, 신으로 격상됨으로서 주변환경과 더 나아가 지구와 우주를

더 나은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집 주인이 바뀌면 그 집안을 자신이 원하는 모양과 분위기로 바꿀 수 있듯이 말이다. 따라서 우주에서 사람의 인식과 의지의 방향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 이 우주의 전체적인 분위기 및 존재양상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 글의 전체의 방향과 의도, 목적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아니다. 바로 인간 자체의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외계의 어떤 수준 높은 다른 문명, 아니면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지구 내의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깨달음과 우리의 태도이다. 그래서 인간 자체의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외부 물질세계의 변혁, 문화·문명의 변혁보다는 인간 자체의 내면적 변혁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현대의 엄청난 부와 과학과 기술적인 능력을 인간의 탐구영역 쪽으로 확장시켜야 하며, 인간에게 있어 그 존재의 비밀과 잠재능력이 무엇인가를 면밀히 탐구해 보아야 한다. 그것만이 가만 갈수록 쌓여만 가는 인류의 총체적 위기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게 될 것이요 마지막 남은 유일한 희망의 돌파구가 될 것이다. 진정한 인간의 연구와 개발만이 인류에게 열어 보일 희망의 판도라 상자가 될 것이다.\*

김주호 승사